

## 졸업생에게 보내는 축하 메시지

졸업생 여러분!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입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진심으로’라는 접두사는 의례히 붙이는 하나의 수사가 아닙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예년에 없던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쳤기에, 제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축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소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고등교육 과정을 마쳤다는 공로에 더해, 특히 이번 졸업생들은 ‘코비드-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학기를 굳건히 잘 마무리한, 진정한 인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장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을 직접 가르친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대견하고 고맙고 축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금강대학교에서 습득한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양적으로는 작은 대학인 금강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졸곧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다소 위축되거나 답답하다는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에 나가서 다른 대학 출신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가 염려하는 학생도 없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실속 있게 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었고, 기숙대학(RC)이라는 입지에서 착실하게 공동체 의식과 자비의 인성 그리고 계룡산 정기를 바탕으로 체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한국 최초의 서구식 기숙형 리버럴아츠 대학(LAC)인 금강대학교에서 ‘소수정예’로 키워진 인재임을 잊지 말고,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회생활은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지내던 시기보다 훨씬 더 어려우면 어렵지, 결코 쉽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언제든지 학교를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금강대학교는 마치 여러분의 고향집과도 같이, 친정집과도 같이, 가족처럼 여러분을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돌아 와서,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상담하고 해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저와 교직원 선생님들은 늘 대비하고 있겠습니다.

평소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21세기는 끊임 없이 평생학습이 필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외에,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그때그때의 새로운 내용의 전문지식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봉사 차원 외에 대학원 수준에서의 고급 평생학습 콘텐츠와 전달방법을 개발하는 일이요즈음 금강대학교가 구상하는 발전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평생학습을 위해 다시 찾아 올 때쯤이면, 금강대학교는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및 연구기관으로서 여러분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금강인이면 영원한 금강인입니다. 금강대학교는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사회에 공헌도 하는 소수정예 인재가 되도록, 계속 지원하고 기원하고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거듭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회인으로서의 힘찬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2020. 8. 24.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드림